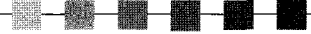


특집 · 고돈가 시기의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소모성 질병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



김형린 대표
맥스피드

1. 서론

농림부가 발표한 6월 가축통계 조사결과를 보면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성 저하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양돈장수 역시 12,150호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10.5%나 감소하였다. 최근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금년 3~5월간 출하와 폐사로 감소한 돼지는 약 516만두로 이 중 89.2%는 정상적으로 출하되었지만 10.2%인 562만두는 폐사했다 한다. 이에 따라 2분기 돼지 폐사두수는 전년동기대비 약 10%가 증가해 또다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농림부는 폐사두수를 농가에서 사육도중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죽은 마릿수로 정의하고 있다.

더구나 전년동기대비 사육두수는 35%가 줄었으나 폐사두수는 10%가량이 늘어 폐사비중이 높아졌다. 이처럼 폐사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소모성질병 때문인데, 소모성 질병은 밀집사육, 조기이유 등 과도하게 생산성을 높이려는 농가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수의과학검역원 1분기 분석결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사육두수 감소요인 가운데 질병에 따른 폐사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PED(유행성설사병),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 PMWS(이유후전



〈표 1〉 양돈 사육 현황

구 분(천두)	'01	'02	'03	'04				'05	
	12월	12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총마리수	8,720	8,974	9,231	9,006	9,017	9,046	8,908	8,838	8,786
- 후보돈	71	66	65	63	66	64	70	74	72
- 모돈	884	889	910	899	901	874	865	874	884
증가요인	생 산	4,259	4,390	4,590	4,545	4,589	4,534	4,387	4,394
	구 입	644	678	729	653	742	755	766	754
	계	4,903	5,068	5,319	5,198	5,331	5,289	5,513	5,148
감소요인	출 하	4,581	4,629	4,875	4,867	4,850	4,726	4,808	4,633
	폐 사	370	387	440	479	494	497	474	526
	계	4,951	5,016	5,315	5,346	5,344	5,223	5,282	5,159

신성소모성질병) 등 소모성 질병의 발생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1분기 돼지 병성감정실적의 경우 PMWS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장균증, PRDC(돼지복합호흡기질병),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 PED(유행성설사병)의 순으로 조사됐다. PMWS의 경우,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주로 발생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복합감염)까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단 PED는 실제 발생을은 더 많으나 신고시 불이익을 감안한 농가들의 의외기피를 감안해야 한다. 자돈의 폐사는 복합적인 요인이 커서 집단폐사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PRRS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돈의 유사산증으로 자돈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한 도축두수 부족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에 차질을 계속 빚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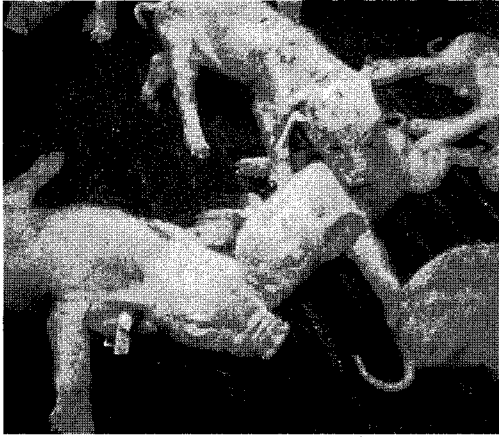
2. 소모성 질병의 국가적 피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작년도 표본농가의 평균성적을 보면 모돈회전율은 1.9, PSY

는 17.5두로 발표하였다(2003년도의 성적은 각각 2.0회전과 18.3였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분만하여 출하에 영향을 준 모돈수를 90만두로 계산했을 때, 실제 모돈당 연간출하두수(MSY)는 16두에 불과했으며 이유 후에 모돈당 연간 1.5두 이상을 폐사시켰다고 유추되어 결국 전국적으로는 이유후 비육돈군이 135만두나 폐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해를 두고 더욱 커진다는데에 있다. 금년도 5월까지의 누적 도축두수는 566만두로 전년대비 무려 7.5%나 감소하였다.

〈표 2〉 돼지고기 수급 전망

구 분	2004년 실적	2005년 추정	2010년 추정	
사육두수(천두)	8,908	8,850	9,100	
1인당 소비량(kg)	17.82	17.50	20.00	
인구수(천명)	48,082	48,294	49,595	
공급	생산량(톤)	748,600	692,200	764,700
	수 입 량	108,800	180,000	257,000
	소 계	857,400	876,200	1,021,700
	자급율(%)	87.3%	79.5%	74.8%
수요	소 비 량	856,800	845,200	991,900
	수 출 량	15,800	7,000	15,000



그렇다면 작년도에 분만하여 출하에 영향을 준 모든 수를 90만두로 계산했을 때, 실제 모든 당 연간출하두수(MSY)는 16두에 불과했으며 이유 후에 모든당 연간 15두 이상을 폐사시켰다고 유추되어 결국 전국적으로는 이유후 비육돈군이 135만두나 폐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해를 두고 더욱 커진다는 데에 있다. 금년도 5월까지의 누적 도축두수는 566만두로 전년대비 무려 7.5%나 감소하였다.

또한 이 기간중 돈육수입량은 93,202톤으로 전년대비 114%가 늘어서 작년도 총수입량인 10.9만톤 보다 65% 증가한 18만톤이 수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년도의 총 도축두수를 작년도 1,462만두보다 7%가 감소한 1,360만두라고 가정하면 <표 2>와 같이 자급율은 80% 미만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3. 제 언

환경(토양오염)문제에 대응한 구리나 아연의 사료중 사용량의 제한(감소)는 체지방이 더 적도록 개량되어 진 후보돈을 포함한 모든군의 발정 장애로 이어지고, 지난 5월의 자돈

사료에의 카바독스 제거는 PRRS, PMWS 및 PED가 문제되는 농장에서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맞물려 설사병(대장균 및 살모넬라증 등)으로 인한 폐사 및 성장지연으로 이어져 저온진입기인 4/4분기에는 증식성회장염이 고개를 들 공산이 크다.

한국양돈의 기초생산량을 충족시킬 총두수 90만두 이상 유지, 자급율 75% 이상 고수는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양돈산업의 총 역량을 집결시켜 각종 규제와 소모성 질병의 피해를 극복하고 정예 양돈인이 한국양돈을 짊어지고 가도록 도와야 한다. 양돈

대한양돈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koreapork.or.kr